

국제 그림동화原畫 紙上展

이 화보는 한국출판계가 최초로 기획한 국제그림동화원화전을 기념해 悅話堂에서 펴낸 「어린이책 일러스트레이션」(아시아지역 중심의 일러스트레이션 124작품집)에서 전제한 것임.

1. 강우현 「사막의 공룡」(노마쿠크르 大賞)

사막에 깊이 파묻혀 수천년 동안 잠자고 있던 공룡이, 어느날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에 눈을떴습니다.

2. 이성표 「비오는 날」

개구리와 나비가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빗방울이 세차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개구리는 빗물이 너무 차가워서 몸이 떨렸습니다. "나비아. 다음에 놀자. 나는 너무 추워." 개구리는 얼른 연못 속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3. 윤학중 「단군 할아버지」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 내려온 환웅님은 '신시'라는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곰과 호랑이가 살고 있었는데, 무척이나 사람이 되고 싶어서 어느날 환웅님을 찾아가 즐겼습니다. — 단군신화

4. 이혜리 「쾌지나 칭칭 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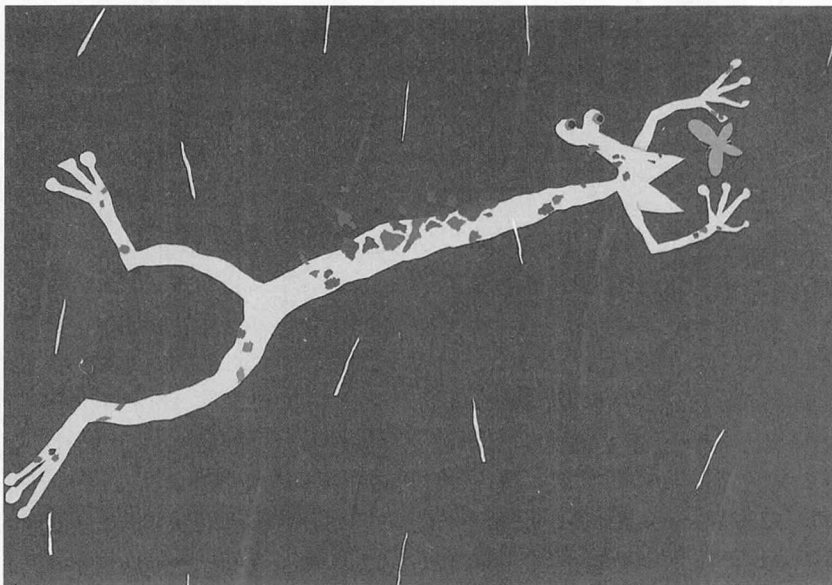
하늘에는 별도 많다 쾌지나 칭칭 나네 / 강변에는 돌도 많다 쾌지나 칭칭 나네 / 술밭에는 공이도 많다 쾌지나 칭칭 나네. — 전래민요

5. 김교만 「결혼하는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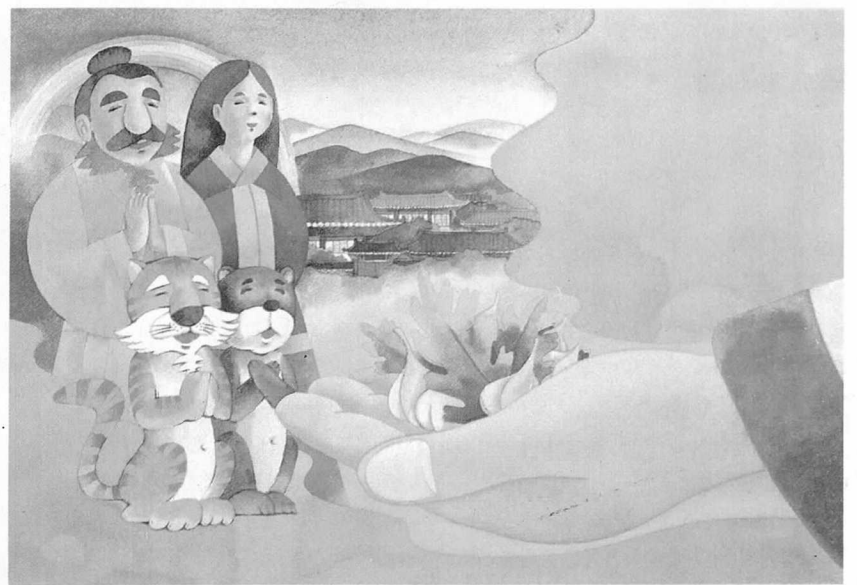
시골 신랑이 서울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함진애비와 오리를 든 중방(中房)을 앞세우고 말타고 길을 떠납니다. 경주에서 첨성대를 구경하고 수원성을 지나 서울 신부집에 도착했습니다.



1.



2.



3.



4.



5.



6.

6. 岩村和郎 (일본) 「소풍가는 열네마리 들쥐」

열네마리 들쥐들이 소풍을 갑니다. 모두들 점심을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준비를 마치고 떠납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 숲속을 지나고 들판을 지났습니다. 느릿느릿 기어가는 두꺼비도 보았습니다.

7. 안젤라 라코 (브라질) 「소인 바카나와 그 친구들」(노마콩쿠르 佳作)

소인 바카나와 그 친구들은, 늘 밤만 되면 내 방에 쳐들어와서 자질구레한 것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8. 黒井 健 (일본) 「돼지 모모꼬는 발레리나」

시골소녀 모모꼬는 어느날 옆마을에 있는 큰 홀에서 처음으로 발레를 보고 반했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에 있는 발레학교에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맹연습 결과 모모꼬는 주역인 여왕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9. 자이누딘 자밀 (말레이시아) 「새끼 악어」(노마콩쿠르 佳作)

팡이라는 새끼 악어는 햇볕을 쬐거나 파파야 열매 따먹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어느날 팡은 세상의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10. 李老十 (중국) 「醉拳으로 將門神을 혼내준 武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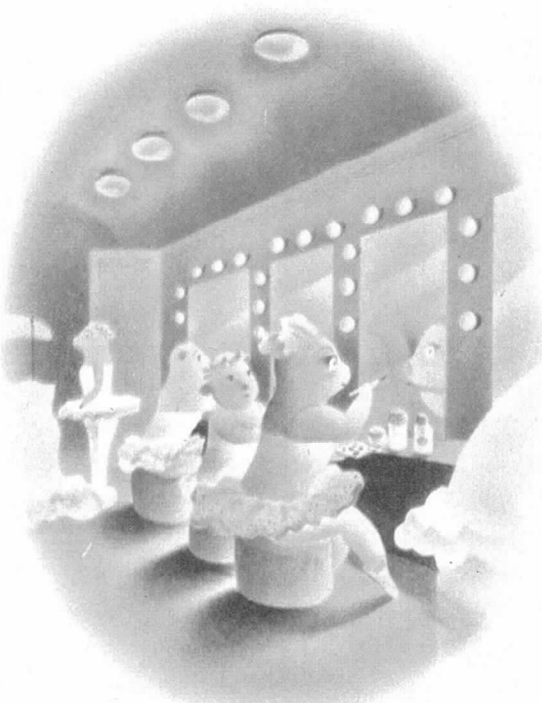
무승이 취권이라는 권법으로 장문신을 혼내 주었습니다. —「수호지」

11. 에두아르도 무뇨즈 바크 (쿠바) 「놀라운 도시」(노마콩쿠르 次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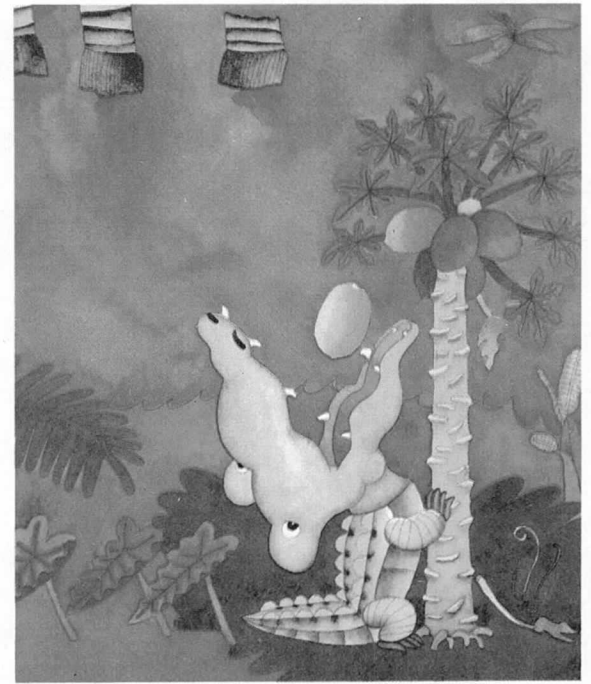
집에서 기르는 새와 금붕어들이 반란을 일으켜 한 도시를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 낼 수 있으리라고는, 인간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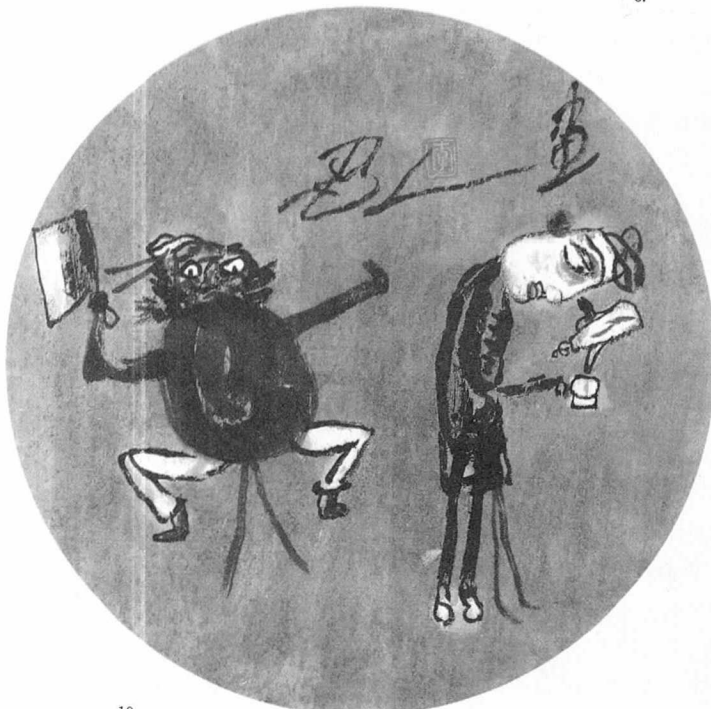
7.



8.



9.



10.



11.